

부활6주일/가정주일 감사성찬례

전례곡 C곡 집전 구균하 신부

시작예식 · 말씀의 전례

입당성가	성가 244장
죄의 고백	기도서 244쪽
기원송가	성가 81장
1독서	사도 10:44-48
2독서	1요한 5:1-6
성시	시편 98편
복음	요한 15:9-17
설교	사제 천용욱
사도신경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은이

성찬의 전례 · 파송예식

봉헌성가	성가 528장
성찬기도	기도서 266쪽
성체성가	성가 618장
축복기도	집전사제
파송성가	성가 533장

< 감사성찬례 및 주일봉사자 >

구분	이번 주일(가정주일 5월 9일)			다음 주일(승천대축일 5월 16일)		
	9시	11시	2시	9시	11시	2시
집전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설교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구균하신부
독서	김태영	이복련	정정훈	정상임	박계자	김재현
	윤지훈	이정숙	신환중	윤지훈	유인환	이규리
교회와세상을 위한 기도	신명식	한재업	신하준	김태영	김종희	김예담
	윤용환	이종환	-	박해웅	차기성	-
청소	엑솔타테(1조) 5월15일 김재현, 박남이, 이현희, 이정주, 유희주			유빌라테(2조) 5월22일 성하준, 이현정, 이자영		

< 다음주일 5월 16일 승천대축일(나해) >

독서/복음	사도: 1:11 / 에페 1:15-23 / 시편 47 / 루가 24:44-53
설교	하늘에 오르신 주님
성가	입당 234장 봉헌 238장 영성체 218장 파송 263장

다음주일 암송구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가 24:51)

시편 98편

- 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야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다.
|| 그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 승리하셨다.
- ① 주께서 그 거두신 승리를 알려 | 주시고
|| 당신의 정의를 만백성 앞에 | 드러내셨다.
- ①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을 | 울려라.
|| 기뻐하며 목청껏 | 노래하여라.
- ① 거문고를 뜯으며 주님께 노래 | 불려라.
|| 수금과 많은 악기 따며 | 찬양하여라.
- ① 물결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다 같이 환성을 | 울려라,
|| 그가 세상을 다조러 오시니, 주 앞에서 환성을 울려라.
- ①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 만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리라.
- 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 영원히 아멘

기도의 향

+ 교회를 위하여

-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 아프고 약한 이웃을 돌보도록
-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도록
- 배우고 익힘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 가정을 위하여

- 모든 가정이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 남북한의 평화를 위하여
- 가난하고 고령화는 사람들을 위하여

+ 임신 강서인

- 한자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강보경 권영달 김경옥
박도록 이명일 이순환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하숙 신정자 고금

+ 군복무 전호중 전필중 김건우 조영현 이준형 송준석

+ 유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미국) 김슬기(미국) 이재동 윤상기(미국) 서한열(캐나다)

교회소식

<주일 감사성찬례 참여를 위한 지침>

- 1) 입장 전에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검사하고, 참석자 명단을 꼼꼼히 적습니다.
- 2) 입장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을 씻습니다.
- 3)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성찬례를 드립니다.
- 4) 영성체는 성체만 먹고 보혈은 먹지 않습니다.
- 5) 예배 전과 후에 교회 안팎을 소독합니다.
- 6) 애잔과 단체별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일감사성찬례는 세 번에 나눠 봉헌합니다(오전9시/오전11시/오후2시). 성전 안에서는 표시된 좌석만 이용해 주십시오.

◆ 관구 ‘사순절 희망의 헌금’

여러분 교회를 돕는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5/23 성령강림주일까지)

◆ ‘365 성서통독운동’

365 성서통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요. 매일 전달되는 문자와 카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10,000원)

◆ 부활절 이후에도 매일 아침기도는 계속됩니다.

매일 오전5시50분에 드리는 아침기도에 참석해 주십시오. 기도 후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묵상 길잡이’와 ‘기도 의향’을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남교구구 연합 ‘9월 기도’ -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승천대축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진행되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제안하여 시작된 세계성교회 기도운동입니다.

기간 5/13(목/승천대축일)~22일(토/성령강림주일 전일)[평일 9일간]

방법 중보기도 대상자(군경에 처한 가족이나 이웃) 5명을 정하고 참여
오전6시 유튜브 아침기도 또는 오전5시50분 교회 아침기도에 참여

◆ 온라인 소모임 안내

사목단이 준비하고 5월 정기교회위원회에서 결정된 ‘말씀과 생활나눔을 위한 온라인 소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관찰사제와 보좌사제가 각 1개 모임을 마련합니다. 각 모임의 인원은 5명이며 참여는 선택적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보좌사제(010-3460-7382)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주일

오늘(5월9일)은 가정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신 GFS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신 교사회에 감사드립니다.

◆ 제단 꽃 봉헌 안내

제단 꽃봉헌 받습니다. 사무실 앞에 마련된 신청표에 봉헌하시는 분의 성함과 원하시는 날짜 그리고 내용을 쓰시고 봉헌해주시요.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다시마 1kg(1박스) 17,000원 -미역 1kg(1박스) 28,000원
-참기름 1병 1만원 -들기름 1병 9천원
-엿기름 600g 4천원 -멸치 1박스 1만7천원
-매실액기스 2L 1만원 -새우젓 2L 2만5천원
-된장 2kg 1만3천원 -순창매실고추장 2kg 1만5천원
-고사리 주문 받습니다.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차민경(9일) 주창남 김재업 류인재(13일)
장분순(14일) 윤지훈(15일)

+ 혼인을 축하합니다!

일시 2021년 5월 15일(토) 14시 아모르웨딩컨벤션 4층 (전남 순천시)
신랑 권도열 권영대·허영희의 차남
신부 정성별 정대영·김문자(루이스)의 차녀

구분	참석	봉헌	금액	월정집일조	월정집일조
감사성찬례	월정집일조	2,170,000			
주일	93	주정헌금	285,000		
아침기도	21	교회학교	3,000		
		감사헌금	1,180,000		
		주일헌금	38,000		
		성소계발			
합계	114	합계	3,676,000		
<기간 4/26-5/2>					
				주정헌금	김경아 김삼흥 김요한 설훈 송미경 신희숙 유수향 윤영옥 윤영자 윤옥량 이경희 이성민 이정숙 전병도 정명옥 주애다 주창남 주창순 차기성 차기영 한부순 한예지
				감사헌금	강서린(임신10만) 김복근(생일5만) 김재업(생일10만) 송미경(생일5만) 유호애(생일1만) 윤선귀(생일5만) 윤지훈(생일5만) 조혜순(자녀결혼30만/떡봉헌33만) 차기경(결혼기념5만) 한기원(생일5만)
				특별헌금	이복연(나눔의집5천/온라인선교5천/여성선교5천) 김용행(온라인선교2만) 국기헌금 윤옥량(5만) 이용해(4만8천9백) 우영현(50만)
				성소계발	춘천나눔의집 후원 곡영안 김문자 김종희 박계자 박해웅 윤영옥 이경희 이보연 이순경 이용해 이종환 차기성 한재업 (13명)

함께 읽는 365 성서통독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곧 나으리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읽고, 함께 익히고, 함께 살아가기

2020. 11. 29.(대림1주일) - 2021. 11. 21.(왕이신 그리스도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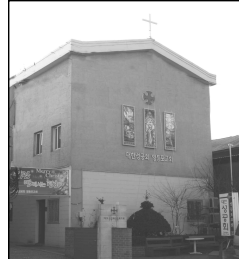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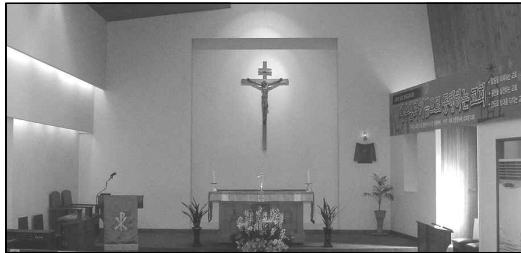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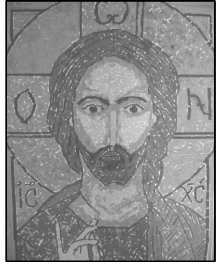
함께 읽는 365 성서통독

2020년 11월 29일(대림1주일)부터
2021년 11월 21일(왕이신 그리스도주일)까지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곧 나으리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읽고, 함께 익히고, 함께 살아가기





성 공 회

영 등 포 교 회

성공회(聖公會 Holy catholic church)는 하나이요, 거룩하고(聖), 보편되며(公), 사도로부터 이어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會)입니다. 성공회는 믿음의 기초를 성서에 두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성서적 전통과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선교로 1890년에 설립한 대한성공회는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성공회 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신자는 164개 국가에 약 1억 명입니다.

성공회 영등포교회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강남교무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1966년 노동자를 위한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선교정신은

- 첫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둘째, 새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합니다.
- 셋째,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 넷째,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섯째, 창조질서를 보존하며, 지구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래의 다섯 가지를 지향합니다.

1.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가 되는 교회
2.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몸소 증명하는 교회
3. 아프고 약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보살피고 돌보는 교회
4.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5.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 일 및 주 간 모 임

-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주일 및 주간의 모든 모임은 잠정 중단합니다.
- * 주일 감사성찬례는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 * 11시 감사성찬례는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채널

찾아오시는 길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크리스토퍼

2021 교구표어 “친교의 신앙으로 선교하는 제자공동체”

교회표어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은사공동체”

‘가정 - 하느님의 축복’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창세1:27)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서로 거들 짝’(창세2:20)이 되어 삶의 동반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카인과 아벨 두 자식을 허락하시어 카인은 곡물을 키우게 하고 아벨은 양을 치도록 복을 주셨다지요. 그런데 그 첫 사람들이 부부로 형제로 또 부모 자식으로 사는 동안에 그만 안타깝게도 하느님께서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지어주신 뜻을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화가 되고 말았다고 하네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창세2:23)과 같은 귀한 존재였던 남편과 아내가 그만 서로 탓하고 핑계를 대며 숨기고 감추는 불신의 대상으로 변했고요. 또 형제간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다가 마침내 다른 형제를 죽이는 아프고 슬픈 모습이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본래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어 지어주시고 맺어주신 고마운 가족이 그만 원수가 되기도 하고 즐거워야 할 가정이 지옥과 같은 고통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망가진 까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하느님께서 지어주시고 맺어주신 가족과 가정의 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리고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과 여러 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과 생각은 더욱 넓고 깊어져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마르3:35) 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태6:9~10) 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했지요. 그것은 가족과 가정은 근원적으로 하느님이 지어주시고 맺어주신 축복이며 은총이므로 그 뜻을 잃지 않을 때야 비로소 진짜 가족과 가정이 되는 것이지 그 뜻을 놓치고 나면 첫 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과 같은 잘못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아내이고 남편이며, 부모와 자식이기도 하고 형제와 자매로 살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가정은 변함없이 하느님의 축복이며 은총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믿음과 생각은 나와 우리 가족을 지으시고 맺어주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뜻을 잘 헤아려 따르면서 서로를 돌도 없는 소중하고 고마운 삶의 동반자 여기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

서울교구장 이경호 주교 관할사제 천용옥 010-4123-7357 보좌사제 구균하 010-3460-7382 신자회장 김종희 010-5472-0529 사회회장 차기성 010-4339-5233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원로위원 박도목 서세룡 유호에 송갑두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교회위원 구정애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주경민 한재업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전 화 2671-6290 2633-8877(팩스점용) 홈페이지 www.stchristopher.or.kr e-mail ydp@anglican.kr
기업은행 083-082654-04-015 예금주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